

해외양돈뉴스

미국 99년 도축은 2%증가한 1억두 예상

아이오와 주립, 미조리 양 대학 조사에 의하면 미국의 양돈가들은 2000년까지 사육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에 따라 사육증가시 분기별 도축수와 가격을 예측하였다. 도축은 99년 2/4분기 2천435만두, 3/4분기에 2천575만두로 전년동기비 3% 상회하고 99년 총 도축수는 전년비 2%가 증가한 1억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생체가격은 100kg당 3/4분기가 71.7\$, 4/4분기는 73.9\$ 연간 평균가격이 73.9\$의 하위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사에서는 생산자의 돼지 사육경영상 가격이 100kg당 88.0\$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농무성 농업통계국이 발표한 9월의 주요 17개주의 돼지 사육 상황에 따르면, 100만두이상 사육이 13개주, 그중 아이오와와 N·캐롤라이나의 2개주가 1천만두 이상의 대규모 생산주로 나타났다. 아이오와주는 전국 사육 24%를 점유하고 N·캐롤라이나와 합해서 전국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NPPC, 지난 연말 대대적인 돼지고기 홍보

미국의 돼지사육두수가 지난 10년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돼지가격은 97년보다 무려 30%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되어 양돈 생산자의 수익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돼지고기생산자협의회(NPPC)는 돼지고기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해 TV와 라디오 등 매스콤을 통해 지난 '98년 연말까지 대대적인 선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대기업인 패스트푸드체인점은 돼지고기를 사용한 메뉴를 개발하기로 해, 생산자의 경영상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 3월까지 돈육수입량 증가 예상

일본의 3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돼지고기 수출량도 이 기간동안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기대되고 있다.

일본 농수산성이 조사한 올 3월까지의 전망에 따르면 지난 '98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수요에 맞춘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돼지고기 수입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자국내 생산량 감소 등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95년까지 거의 제자리 걸음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96년부터는 95년보다 1.3% 증가한 11.6kg, 97년도에는 쇠고기 소비가 회복되면서 2.7% 감소한 11.3kg, 98년도(4~8월)에는 1.4%가 증가했다.

머리좋은 애완용돼지, 인기좋아 마리당 최고 342만원

작고 귀여운 미니돼지가 아이들에게 인기도 끌고 축산을 이해시키는 일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일본 시즈오카현 부사공시에서 가족병원을 경영하는 한 수의사가 작년부터 축산한마당 축제에 애완용돼지를 데리고 나와 미니돼지 경주대회를 열어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난 98년 7월에는 유치원에 이 돼지를 기증해 유치원생들에게 인기가 높아 축산에 대한 이해심도 기르는 등 교육적으로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한다.

이 애완용 돼지들은 베트남이 원산지이며 미국에서 개량된 품종으로 체중이 30~40kg, 수명은 20~30년 정도이다. 털색은 흰색, 검은색, 얼룩무늬 등 다양하며, 마리당 가격은 5만~30만엔(한화 약 57만~342만원)이다.

먹이는 잡식성이어서 잔반을 주면 되고 탈모도 적으며 성격도 온순해 애완용으로 안성맞춤이다. 게다가 머리도 좋아 경찰견 기질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개와 고양이 못지 않은 애완용 동물로 인기가 있어 연간 1만마리 이상 팔리고 있다.

E 2005년 까지의 돼지고기 수급전망 U 발표

EU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부터 2005년까지 돼지고기 생산량은 역내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므로 현재의 약 1,710만에서 2005년에는 1,790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42.48kg에서 서서히 증가해 2005년에는 44.39kg이 된다. 이에 따라 EU전체의 소비량은 약 1,590만톤에서 2005년에는 1,700만톤이 될 것이다.

수입량은 시장접근의 개선 등으로 인해 금년의 6만톤에서 2001년에는 9만톤으로 증가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출량에 대해서는 수출보조금의 삭감으로 2001년까지 감소하고 그 이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최대 축산 무역지역 유지

EU의 축산시장이 세계 최대의 무역지역 위치를 고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세계 축산물 소비는 2005년까지 연간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축산시장은 더욱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럽농업지에 따르면 향후 EU는 축산물 생산을 증가시킬 여유가 거의 없어 수요증가에 따른 수급에 어려움이 봉착될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EU 축산물 시장은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지의 생산국들에게 시장이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EU 축산업계는 고부가가치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기반으로 기존 성숙한 시장에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시장의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건강에 유익한 고급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네 양돈산업 구조조정 박차

유럽에서도 양돈산업 강국인 네덜란드는 돼지 사육두수 감축 등을 통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유럽 양돈산업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올해 전체 생산량의 10%를 줄이도록 계획되었으며, 오는 2000년에는 15%를 줄이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전체 돈육 1백80만톤의 생산량 가운데 69만톤은 내수시장에 소비하고 나머지는 수출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도축량의 감소를 가져와 생산측은 물론 도축산업의 재편이 예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돈육가격 하락세 중지

계속 하락세를 보이던 화란의 돈육가격은 1.26길더~1.30길더로 고정되었다가 지난 98년 11월20일 처음으로 kg당 3~5센트가 인상되므로 네덜란드의 돈육가 하락세는 일단 중지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록적인 최저가격으로 써 슈퍼마켓, 양육점, 육류가공업체 등에서 돼지고기를 계속 사들이고 있음은 물론 이들 업체들은 대량 냉동보관까지 하고 있어 지난 98년 2월에 비해 kg당 1.50길더가 내린 돈육가격이 어느정도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실질적으로 사육업자들의 돈육 생산비용은 현재 가격의 2배에 해당된다). 어린 돼지 가격도 아직은 마리당 20길더에 머물고 있다(올초가격 : 마리당 100길더선).

덴마크 1~6월 돼지수출 69만 1천톤으로 전년비 감소, 대러시아 수출 증가

덴마크의 지난 98년 1~6월의 덴마크 돼지수출(중량환산한 생체, 조리제품도 포함)은 69만 1천톤으로 전년동기비 약 1만톤 하회하였다. 부분육이 총량의 50%이상을 점하나 전년보다는 2만5천톤 감소하였다. 국별로는 최대 수출선이 독일로 16만톤, 2위는 영국 11만7천톤이다. 이태리, 불란서를 포함한 EU역내로의 수출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EU역외는 러시아가 7만2천톤으로 전년비 2만8천톤 증가하고 일본이 6만톤으로 등 4만4천톤 감소하였다. 대일수출은 전량이 부분육이다. 미국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 폴란드 수출은 소량에 그쳤다.

캐나다 돼지고기 생산의 3분의 1을 수출, 50%를 조리 가공제품으로

캐나다의 돼지고기 생산은 1994년 이후 120

만톤 수준으로 상승하고 수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97년 수출은 약 42만톤으로 생산량에 대한 수출비가 33.1%로 확대되었다. 생산의 3분의 1을 수출하고 있다.

1인당 소비는 소매 판매중량 기준으로 20kg 전후로 신장은 없고 총 소비량이 96년부터 76만톤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으나, 수출확대에 따른 공급갭이 벌어져 그 보충을 위한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96년부터 총 소비에 대한 수입비가 높아져 97년에는 7.7%로 상승하였다.

생산의 50% 전후가 조리, 가공제품 제조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출은 packer 직접수출이 많고 일반적으로 18톤 컨테이너로 수송된다. 장기 가격고정 방식의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출보조도 현재는 없다.

호주 돼지고기 업계, 수출촉진 기관 설립, 유통 네트워크도 설치

호주 돈육협의회는 지난 98년 10월 12일 프 리스펜에서 개최된 대표자 회의에서 돈육생산자간에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강화를 위한 수출촉진기관의 설립된 국내시장 확충을 위한 네트워크 설치를 승인하였다.

호주의 돼지고기 수출은 일본을 중심으로 급년에 급증하여 '98년 1~8월의 수출총액은 3천 500만 호주\$(2천1049만 US\$)로 전년동기비 30% 증가하였다. 호주 국내 문제로는 유통정비와 수요확대가 급선무로 돈육수입을 자유화한 정부방침에 반발하여 생산자는 업계정비와 관세폭제도 등에 의한 수입규제책의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백색육·적색육 소비 형태차이 두드러져

호주통계국(ABS)이 발표한 97/98(7월~6월) 식품소비 동향조사에 따르면 호주의 육류 소비 동향이 최근 쇠고기 소비는 감소하고, 닭고기

소비는 증가하는 형태를 띠는 등 적색육과 백색육의 소비형태의 구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1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도보다 3.2%로 비교적 크게 감소한 반면, 가금육 소비량은 8% 증가, 돼지고기 소비량은 1% 증가한 선에서 유지되었다.

특히 이같은 형태는 백색육이 쇠고기와 양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느낌을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 소비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돼지고기는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할인행사 등을 실시한 것도 소비회복에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호주의 이같은 육류 소비동향은 미국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말레이시아 양돈장 일본뇌염 유행

최근 말레이시아 양돈장에서 일본 뇌염이 유행,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돼지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지난 98년 2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일본 뇌염에 감염됐다고 보고된 사람은 12명으로 이 중 2명은 회복했으나, 5명은 입원 중이며, 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는 발생지역인 페난 주 근교의 주민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함과 동시에 돼지고기를 먹어도 이 병에서 걸리지 않는다고 공포하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중국 98년 옥수수 수확고 1억 2천만톤 수준

북경주재 미국사료곡물협회 보고에 의하면 중국의 98년 옥수수 수확고는 대규모 흉수에도 불구하고 1억2천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의 옥수수 생산은 정부의 지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98년은 92년대비 25% 증가하였다.

작년 6월부터 개인, 민간기업이 농장에서 직

접 곡물 구입을 금지하고 있어 생산자는 판매 곡물의 전량을 중앙정부가 정하는 가격으로 주(州)기관에 매도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축산, 맥주 등의 수요증가로 곡물의 국내수요가 증가하여 필요량을 확보하고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매상가격도 생산자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수준으로 설정하여 곡물의 자급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국남부의 옥수수 가격은 미국보다 저렴한 톤당 50~60US\$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다.

폴란드 98년 돼지고기 생산 10% 증가, 사료가 안정으로 생산자 이익 향상

98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사육두수 증가로 전년비 1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가격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나 사료가격 저하로 생산자 이익이 향상, 사육수가 증가하였다. 생산 증가에 의한 가격 하락으로 작년 2월에는 정부가 매입하여 98년 6월말 현재 5만4천톤의 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EU는 위시한 미국 등 주요 수출선이다 같은 생산증가로 수출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스미스필드사 양돈업 투자 검토

미국 유수의 육가공업체인 스미스필드사는 최근 폴란드에 양돈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르샤바 비즈니스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필드사는 폴란드 양돈업 진출을 위해 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미스필드사는 폴란드내 약 3만3천ha의 땅에 모돈 10만두 규모의 양돈장을 건립, 인티그레이션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돈**